**제목 : 시작되는 악몽 (그대로 유지)**

**<잠에서 깨어난 엘리스>**

엘리스 : 아, 안돼!....

엘리스 : 휴... 꿈이었구나...

엘리스 : 재수없게 왜 이런 꿈을 꾸는 거야...

엘리스 : 맞다.. 마지막에 엄마 목소리에 놀라서 깼었지...

엘리스 :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걸까? 확인해 봐야겠어.

**<엘리스 방안>**

삐에로 인형 : 이건 오빠의 공연 데뷔를 기념해서 아빠가 만든 삐에로 인형이야. 그런데 오늘따라 삐에로 인형이 웃는게 섬뜩하게 느껴져.. 기분탓일까?

얼음여왕 인형 : 이건 이모가 나한테 선물해줬던 얼음공주 인형이야...

염소 인형 : 이건 아빠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만들어줬던 인형이지...

곰 인형 : 이건 내가 어릴 적에 엄마가 생일선물로 만들어줬던 곰인형 이야.

토끼 인형 : 이건 다음해 생일 선물이었던 토끼인형이야, 이 인형들을 다른 곳에 치워 놓으면 엄마는 항상 인형을 다시 여기에 가져다 놓으셨어.

여우 인형 : 이게 마지막으로 엄마가 만들어준 여우인형인데 이제는 인형들을 그냥 여기에 두기로 했어. 인형 때문에 엄마랑 말다툼하는 것도 지쳤어.

**<문열고 나가서>**

엘리스 : 오늘따라 날씨가 쌀쌀하네... 엄마 방은 내 옆방이니까 어서 가보자..

**<엄마와 대화>**

엘리스 : 엄마.. 지금 안자고 뭐하는 거야?

엄마 : 우리 엘리스니? 생긴 건 우리 딸 하고 조금 다르지만 목소리는 우리 엘리스야..

엘리스 : 무슨 소릴 하는 거야! 기껏 걱정돼서 와봤더니..

엄마 : 아 내 정신좀봐.. 엘리스야 미안하구나.. 엄마가 너도 알다시피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프단다. 그런데 아까 전에 내 침대 옆에 네 오빠가 찾아왔단다! 오빠가 그러는데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는 구나.

엘리스 : 엄마.. 오빠는 4년전에 죽었잖아.. 왜 이러는 거야 정말! 자꾸 이러면 나 화낼 꺼야!

엄마 : 이런.. 많이 화났니? 엘리스야 미안하구나.. 사실 네 오빠는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렸단다...

오빠의 영혼이 오늘 우리 집에 왔는데 엘리스야.. 조심해야해.. 사실은 오빠가 네 영혼도 노리고 있다고 귀뜸해줬어.

엘리스 : 엄마 그런 헛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! 그냥 빨리 자.. 나도 이제 졸리니까 자러갈꺼야.

엄마 : 그래.. 엄마도 피곤하니 누워야 겠다... 잘자렴..

[엄마가 잠에 듬]

다시 엄마와 대화하면

엄마 : 우리 엘리스.. 잘자렴..

**<방을 나와서>**

엘리스 : 도대체 죽은 오빠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... 엄마의 점점 상태가 안좋아지고 있어..

엘리스 : 너무 졸리니까 이제 그만 잠을 자러 가야겠어.

**<보스전>**

제목 : 웃음 속의 눈물 (빨간색 글자)

삽화1 : 엘리스의 오빠는 어렸을때 부터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서 언제나 가족들에게 웃음을 주며 커서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.

삽화2 : 하지만 여이은 대뷔 실패로 엘리스의 오빠는 점점 실의에 빠졌고 결국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다.

삽화3 : 어느날 한 마술사 찾아와 그에게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삐에로 분장으로 공연을 해보자고 제안하였고 엘리스의 오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안에 응하게 된다.

삽화4 : 결과는 놀랍게도 대성공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엘리스의 오빠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고 엘리스의 가족은 다시금 웃음이 넘치기 시작하였다.

삽화5 : 하지만 성공에 도취된 엘리스의 오빠는 다른 유명한 마술사와 손을 잡았고, 그에게 삐에로 분장을 제공한 마술사는 마지막 공연으로 탈출 마술쇼에 엘리스의 오빠를 섭외했다.

삽화6 : 엘리스의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위험한 탈출 마술쇼를 공연하던 엘리스의 오빠는 탈출 장치가 고장이 나서 탈출하지 못하게 되고 몸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.

삽화7 : 피를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관객을 위해 웃음을 유지하는 오빠를 보며 엘리스는 삐에로에 대해 크나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.

**<보스전 전투>**

엘리스 : 뭐야?? 대체 여긴 어디야?

엘리스 : 난.. 분명히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...

엘리스 : 꿈...? 그런데 꿈 치고는 너무 생생해!

삐에로 : 아.. 드디어! 드디어!! (빨간색 글자)

엘리스 : ...저건 대체 뭐야? 그런데 목소리는 많이 들어본 목소린데... 설마 오빠!?

삐에로 : 널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스 히히히.. (빨간색 글자)

**<삐에로 전투 대사>**

대사1 : 엘리스 너도 이제 곧 영원히 웃게 만들어줄게! (빨간색 글자) OK

대사2 : 엘리스 도망쳐! 이건 내가 아니야! ok

대사3 : 그냥 가만히 있어! 우리와 함께 하면 고통에서 해방 될 테니까! (빨간색 글자) OK

대사4 : 엘리스 속으면 안돼! 포탄을 대포에 넣고 나에게 쏴!

대사5 : 자아.. 이제 신나는 파티를 시작해보자! 즐거운 비명소리가 너한테도 들리지? (빨간 OK

대사6 : 내 동생을 건들지마! 이제 쇼는 끝났어! OK

대사7 : 쇼가 끝날 때가지는 아무도 못나가지! 쇼는 영원히 계속될거야! 큭큭큭.. (빨간색 글자) OK

**<전투 종료 후 >**

삐에로 : 안돼!! 누구 맘대로.. 아직 쇼는 끝나면 안된다고!! (빨간색 글자)

오빠 (검은 그림자) : 이제 그만해.. 쇼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렸어.. 이제 끝이야.. (하늘색 글자)

삐에로 : 젠장!! 난 억울해! 억울하다고!! 엘리스! 넌 나와 같이 가야해! (빨간색 글자)

오빠 (검은 그림자) : 엘리스.. 구해줘서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하다 널 힘들게 해서.. 그럼 잘자렴.. (하늘색 글자)

엘리스 : 오빠...? 오빠 맞지? 어떻게 된거야?

오빠 (검은 그림자) : ...

엘리스 : 오빠!!

**<그을린 편지> <- 사이즈 더 크게**

알베르토 군에게...

자네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마법사와 계약한 사실을 듣고 매우 실망했네..

아니 사실 나 자신에게 가장 실망했지..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깎아 내리고 다닌다는 여러 사람들여 증언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도 느꼈다네..

하지만 한번 업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공연으로 우리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네. 난 더 이상 자네에게 어떤 미련도 두지 않을 생각이야.

공연내용은...